

2020년 9월 27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9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 ◎ 찬 송 / 288장(통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8 - 믿음의 방패 - 믿음의 지표

믿음의 방패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 됨의 기본이요 영적 전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열매로 알 수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고 없음은 열매 다른 말로하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나에게 있으면 믿음이 있고 지표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있는데, **신뢰, 의존, 고백 그리고 동행**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지표 이외에도 믿음의 존재 여부를 가능하는 지표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기본적인 지표는 먼저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결국 신뢰의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신뢰라는 것은 믿음의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지표는 의존입니다. 이는 신뢰의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의존은 필요한 때에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존은 신뢰가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지표이기도 하고, 삶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 할 때에 이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 혹은 다른 힘을 의지하곤 합니다. 믿음이 때론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의 신뢰가 약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아들이 반복해서 자신을 자해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무라듯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반응합니다. **24절을 보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이러한 반응은 의지하는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로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절대 의존” 경험이 우리를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분명 극한 상황에서 의존의 믿음이 나타나지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욱 완고해지고, 자기 집착이나 자기 연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에서 나와서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의존이라는 믿음의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과 두려움 없이 배 밖으로 나와 물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광풍과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두려움으로 손상되었고, 결국 베드로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인 사람들은 배 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풍랑을 거슬러 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존의 믿음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믿음의 의존이란 지표를 보이지 못한다면 신뢰조차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라 부르십니다. 분명 이러한 믿음은 허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세 번째 지표는 고백입니다. 특히 신앙 고백은 믿음이 온전히 작동할 때 함께 나타납니다. 물론 믿음이 작동할 때 항상 신앙고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지표입니다. 신앙 고백은 많은 자들에게 보여 지는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압축시킨 고백과 선포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정한 형식으로 정형화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은 교회의 신앙을 구성하고, 다음 세대로 쉽게 전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약 학자인 리처드 롱게니케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초에 “신앙고백”이 있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또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지표는 동행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명시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6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둘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셋째,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행이 믿음의 표지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피스티스”에 “신뢰, 믿음”이란 의미뿐 아니라 “신실한 삶”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자체 속에 삶의 신실함이 불가분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동행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 중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 “믿음의 방패”는 상징 속에도 믿음의 지표 네 가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방패의 대표적인 상징이 적의 집중 공격에 대한 보호라는 것과, 방패 전술은 군인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펼치는 전술이라는 점에서 “신뢰”와 “의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고백”은 방패의 이미지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여호와와 특별한 보호하심을 노래하며 고백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은 로마 군인들에게 방패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군장이라는 의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지고”라 번역된 헬라어 “아날라본테스”는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 뿐 아니라 “잡아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패는 한 번 잡아들면, 놓을 수도, 놓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 이미지 속의 믿음은 군인의 방패처럼 끝까지 동행하는 영적인 갑주인 것입니다. 방패와 동행의 믿음과의 관계는 방패 위에 얹혀 돌아오는 전사한 군인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끊어진 이후까지 군인과 동행하는 갑주가 바로 방패라는 것을 통해 방패의 이미지에서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끝까지 동행한다는 메시지를 분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면예배를 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는 믿음의 동행이 있는 그래서 마침내 악한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65장(통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 폐 회 / 주기도문